

SPORTS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테니스 스타 한곳에...광주오픈 챌린저 '팡파르'



국내 테니스 스타들이 광주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합을 펼친다.

세계 테니스인들의 축제인 '2025 광주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 (이하 광주오픈) 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개최된다.

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와 대한테니스협회(KTA)가 주최하고 광주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30개국 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우승 상금과 랭킹포인트를 노린다.

올해로 8회째 맞는 '광주오픈'은 월드 투어대회로 진급하기 위한 테니스 유망주들의 필수 등용문이다.

총상금 10만 달러 규모인 이번 대회 단식 우승자에게는 75점의 랭킹 포인트와 1만42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복식 1위는 498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때문에 세계 랭킹 100~300위 사이의 선수들에게는 그랜드슬램 진입 및 투어 100위내로 진입에 도움이 되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만한 국내 선수로는 '한국 남자 테니스의 간판' 정현과 권순우.

정현(ATP 단식 472위)은 올 시즌 들어 국제테니스연맹(ITF) 대회에서 3차례 우승하며 예전보다 경기력과 체력이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이번 대회에 대한 팬들의 기대치가 높다. 정현은 와일드카드

20~27일 진월국제테니스장서...30개국 200여명 참가

총상금 10만달러·랭킹포인트 75점...국내 국가대표 출동



를 받아 단식 본선에 나선다.

권순우(ATP 440위)는 군 입대 후 부산오픈에 이어 두 번째로 프로대회에 출전한다. 앞서 지난 6일 경남 함안 공설운동장에서 끝난 제1차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및 전국중별테니스대회에서 우승 2개와 준우승 1개를 차지하며 기세를 올렸다. 남자 단식에서 정상에 올랐고, 홍성찬·정윤성 등과 함께

출전한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정윤성과 파트너를 이뤄 나선 남자 복식에서는 준우승했다. 박의성(ATP 955위)과 복식 본선에도 출전한다.

지난해 대회 단식 16강과 복식 4강에 올랐던 정윤성(ATP 976위)과 지난해 대회 복식 준우승을 차지한 이덕희(ATP 862위), 어머니의 국적을 따

라 한국 선수로 활약 중인 제라드 캄파나 리(ATP 405위), 남지성(ATP 675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두 출전해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해외 선수로는 올해 마이애미 마스터스 16강에 오른 애덤 월튼(호주·세계 85위), 2025 인도 뱅갈 루루오픈 우승자 브랜든 홀트(미국·115위), 2023

윌블던 8강 진출자인 크리스토퍼 유뱅크스(미국·117위), 2023년 최고랭킹 37위까지 올랐던 에밀 루수부오리(핀란드·222위) 등이 참가해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2024년 호주오픈 주니어 챔피언인 올해 18세의 사카모토 레이(일본)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대회는 20~21일 남자 단식 예선전, 22~25일 남자 단식 본선전, 22~24일 남자 복식 본선전, 25일 남자 복식 준결승, 26일 남자 단식 준결승으로 진행된다. 경기는 단식 49경기(예선 18, 본선 31)와 복식 15경기(본선 15) 등 총 64경기가 치러진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복식 결승전은 26일 오후 단식 결승전은 마지막 날인 27일 진행된다.

광주시테니스협회는 광주오픈기간동안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도 동시 개최한다. 오는 26일 여성동호인대회, 27일 MZ세대를 위한 테린이대회를 개최해 동호인들이 경기는 물론 다양한 경험추진 등을 통해 광주오픈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광주오픈 대회기간 중 정현, 권순우, 정윤성, 남지성, 박의성, 제라드 캄파나 리 등이 참여하는 전현직 국가대표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광희 광주시테니스협회장은 "광주오픈에 국가대표를 포함 국내 우수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세계 우수 선수들과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타 선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경주한수원과 코리아컵 첫 일전



오늘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서 3라운드 경기

프로축구 광주FC가 국내 최고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코리아컵에 나선다.

광주FC는 16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K3리그 소속 경주한수원과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3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최상위 리그인 K리그1 소속으로 3라운드부터 참가한다. 이번 코리아컵은 2라운드를 통과한 16개 구단에 대해 3라운드부터 나서는 8개 구단, 지난 시즌 성적 우수 4개 구단(울산 HD·강원FC·FC서울·포항스틸러스)이 4라운드부터 합류해 우승컵을 놓고 다툰다.

올 시즌 광주는 시즌 초반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리그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

리그 9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3승 4무 2패(승점 13)로 4위를 질주하고 있다. ACLE에선 16강 상대 비셀 고베를 누르고 K리그 시도민구단 최초 8강 진출에 성공했다. 현재진행형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광주는 코리아컵 정복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코리아컵 경기에서는 리그 경기에서 출전 시간이 다소 부족했던 선수들의 의지가 돋보인다. 박정인, 권성윤, 황재환 등 공격진들의 활약이 주목된다. 홍용준, 이재환, 진시우 등의 젊은 선수들 역시 이정호 감독과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광주의 상대는 2라운드에서 파주시민축구단을 4-1로 제압하며 기세를 탄 경주한수원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광주가 앞서는 게 사실이나 방심할 수 없다.

당장 2라운드에서 이른바 '자이언트킬링'이 연이어 나오며 이번이 속출하고 있고, 이는 선수단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이유다.

선수단은 지난해 대회 4강에 진출하며 구단 최고 성적을 기록했지만,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경험을 자양분 삼아 이번엔 정상을 밟겠다는 각오다. 광주가 코리아컵 첫 일전에서의 승리를 통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FC 홍보대사’ 조빈, ACLE 두 번째 응원곡 공개

오늘 ‘나의 아들이!’ 발매... 코리아컵 홈경기서 특별 공연

프로축구 광주FC 홍보대사 노라조 조빈이 광주

의 ACLE 우승을 기원하는 응원가를 공개한다. 광주는 16일 조빈의 두 번째 ACLE 응원곡 ‘나의 아들이!’를 정식 음원으로 발매하고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곡 ‘나의 아들이!’는 지난해 8월 공개해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Let’s fly Let’s shine, Gwangju’에 이은 두 번째 ACLE 응원곡으로, ACLE 8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낸 선수단과 팬들의 자부심을 일깨우고 우승을 기원하는 곡이다.

구단 홍보대사인 조빈은 지난 8일 광주 유소년팀 응원곡 ‘개입체먼저스’를 공개하는 등 다시 한번 신곡을 공개해 광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조빈은 “이 노래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함께 나아가자는 응원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진심 어린 가사와 감동적인 멜로디가 선수들에게는 격려가, 팬들에게는 자부심이 되



광주FC 홍보대사인 노라조 조빈.

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빈은 16일 오후 7시 경주한수원과의 코리아컵 3R 홈경기 하프타임 특별 공연을 통해 응원곡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

백기태호, U-17 아시안컵 4강행

승부차기 끝에 타지키스탄 제압

우리나라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승부차기 혈투 끝에 타지키스탄을 누르고 2025 아시아 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4강에 진출했다.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5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프린스 압둘라 알 파이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타지키스탄과 8강전에서 전, 후반을 2-2로 비긴 뒤 진행된 승부차기에서 5-3으로 이겼다.

인도네시아와 첫 경기를 0-1로 패해 불안하게 대회를 시작한 한국은 이후 치른 3경기에서 모두 웃으면서 4강행 티켓을 따냈다.

2023년 태국에서 열린 직전 대회 결승에서 일본에 0-3으로 완패해 준우승에 그쳤던 한국은 2개 대회 연속 결승행에 도전한다.

8강에서 일본을 제압하는 이번을 쓴 홈팀 사우디아라비아와 4강전은 오는 17일 오후 11시 오카드 스포츠 클럽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한다.

우리나라의 이 대회 마지막 우승은 2002년으로, 당시 승부차기 혈투 끝에 예편을 제압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백기태호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절호의 득점 기

회를 잡았다. 왼 측면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상대 수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문전에 있던 박병찬(충남기계공고)의 발 앞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박병찬의 후속 슈팅이 막없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후반 21분 백기태 감독은 공격을 이끌던 박병찬을 김지성(수원 U-18)으로 교체하며 변화를 꾀했다. 김지성은 투입 1분 만에 득점을 끌어내 사령탑의 믿음에 보답했다.

오른 측면에서 김지성의 한 발자 빠른 크로스가 반대편 측면에서 문전으로 쇄도한 정현웅(서울 U-18)에게 정확히 배달되면서 선제 득점으로 이어졌다.

기세가 오른 대표팀은 후반 29분에도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VAR) 끝에 임예찬의 슈팅이 나오기 직전 김지성의 팔에 맞고 공이 흘렀다는 판정이 나왔다. 아쉽게 득점이 무산된 한국은 후반 38분 오른 측면이 풀리면서 동점 골을 허용했고, 2분 뒤 역전 득점까지 내줬다.

페널티킥 키퍼로 나선 김지성이 오른발 강슛으로 2-2를 만들면서 일단 패배 위기에서 팀을 건져 올렸다. 대회 규정상 연장전 없이 진행된 승부차기에서는 모두 득점한 가운데 골키퍼 박도훈(대구 U-18)이 한 차례 선방에 성공해 한국이 최종 승자가 됐다. 연합뉴스

‘제14회 광주시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개최

광주 동구 볼러스 볼링장서

10개 시·도 250여명 참가

전국 시각장애인볼링선수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14회 광주시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가 15일 광주 동구 볼러스 볼링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장에인체육회와 광주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최하고, 광주시장에인볼링협회와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대회로 전국 10개 시·도에서 총250여명(선수 100명, 임원 및 관계자 150명)이 참가했다.

시각장애인볼링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3개의 세부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대회는 전맹장애인인 참여하는 TPB1(남·여)과 약시장애 정도에 따라 TPB2·TPB3(남·여) 등급으로 개인전 경기가 진행됐으며 통합등급 3인조 단체전이 실시됐다.



‘제14회 광주시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가 15일 광주 동구 볼러스 볼링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현성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에 전국의 시각 볼링 선수들을 모시고 대회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든 선수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까지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는 시각 장애인볼링의 보급·확산에 기여하고, 볼링을 통한 비장애인과의 교류를 위해 지난 2010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열고 있다. 송하중 기자